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방향과 크기는?
  - ◇ (칼럼)-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에게 득인가 실인가?
  - ◇ (초점)-채권시장, '4 월 금리인상' 전망 낮춘 이유..그래도 채권 롱 경계하는 이유
  - ◇ (시장진단)-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달러/원 급등..수급 저항도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로이터/피터 차이보라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2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01.6	-0.5%	-1.1%	-8.6%	유로	1.1269	-0.5%	-0.9%	-6.9%
100엔 대비	1,036.5	0.3%	-0.3%	+1.8%	엔	115.58	-0.5%	-0.4%	-10.3%
유로 대비	1,349.9	0.3%	0.1%	-1.9%	위안	6.3170	0.1%	0.6%	+2.7%
위안 대비	189.62	-0.3%	-1.4%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058.75	-0.1%	-6.3%	+18.7%
코스피	2,676.76	-2.5%	-10.1%	+3.6%	나스닥	13,694.62	1.1%	-12.5%	+21.4%
코스닥	872.98	-1.0%	-15.6%	+6.8%	S&P500	4,384.65	0.8%	-8.0%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94.16	-4.3%	-5.7%	-4.9%
국고채 3Y	2.244%	-7.8bp	44.6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468%	-4.2bp	45.7bp	+67.6bp	미국채 2Y	1.570%	10.0bp	84.0bp	+61.0bp
국고채 10Y	2.671%	-5.7bp	42.1bp	+53.7bp	미국채 10Y	1.970%	4.0bp	46.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1.94	0.3%	21.9%	+55.8%	한국 5Y	28.8bp	1.0bp	6.8bp	-0.7bp
금(현물)	1,887.98	-0.5%	3.2%	-3.6%	일본 5Y	17.8bp	0.2bp	0.2bp	+2.1bp
TR상품지수	3,420.51	3.8%	2.4%	+24.6%	중국 5Y	56.6bp	3.6bp	15.4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2월 28일(월)>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15:45)

### <3월 1일(화)>

- 공휴일
- 산업부, 2월 수출입 동향(09:00)
- 금융위,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12:00)
- 한은, 2021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12:00)
- 한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12:00)

### <2일(수)>

-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08:00)
- 금융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배포시)
- 한은, 2021년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12:00)

### <3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 한은,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08:00)
- 한은,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기재부,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17:00)

### <4일(금)>

- 한은, 2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한은, 2021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2월 28일(월)>

- 일본 1월 산업생산 잠정치 · 소매판매 (08:50)
- 일본 1월 건축주문 · 주택착공 (14:00)

- 미국 1월 도 · 소매재고 수정치 (22:30)
- 미국 2월 시카고 PMI (23:45)
- 대만 휴장

### <3월 1일(화)>

- 미국 2월 달러스런은 제조업경기지수 (00:30)
- 일본 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치 (09:30)
- 중국 2월 NBS 제조업 · 서비스업 PMI (10:30)
- 중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10:45)
- RBA, 통화정책회의 (12:30)
- 유로존 2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18:00)
- 미국 2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23:45)
- 미국 1월 건설지출 (자정)
- 미국 2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자정)

### <2일(수)>

- 일본 4분기 기업설비투자 (08:50)
- 유로존 2월 CPI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2월 ADP 전국고용동향 (22:15)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 (자정)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자정)

### <3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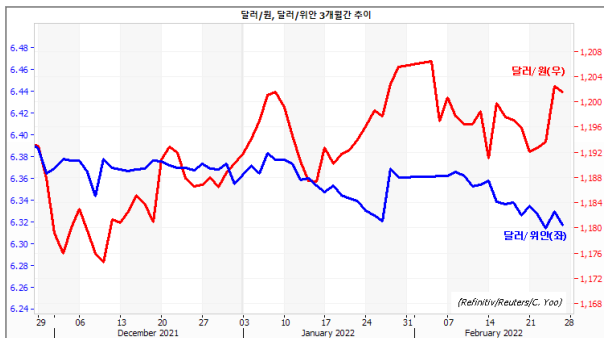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4:00)
- 일본 2월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치 (09:30)
-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일본 2월 소비자신뢰지수 (14:00)
- 유로존 2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18:00)
- 유로존 1월 생산자물가 · 실업률 (19:00)
- 미국 2월 챌린저 해고건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4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2:30)
- 미국 2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23:45)
- 미국 1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 공장주문 (자정)
- 미국 2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자정)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 (자정)

### <4일(금)>

- 일본 1월 실업률 (08:30)
- 유로존 1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2:3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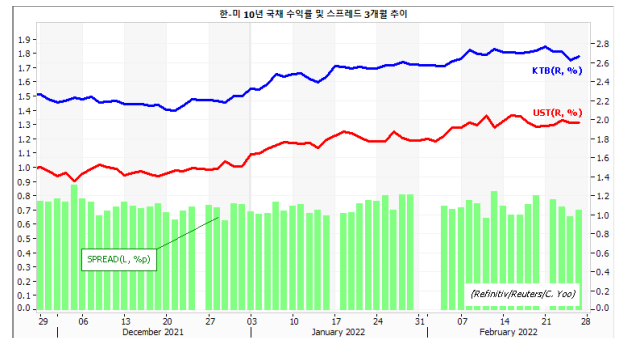
##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스탠스를 주목하면서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90-1205 원이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내 극도의 공포감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변동성에 취약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 지난 주말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강력한 카드까지 빼 들었다.
- 최근 달러/원 환율은 주로 글로벌 위험 회피 방향과 강도 따라 움직이지만, 수급의 치열한 대치 상황도 반영됨에 따라 환율의 상·하단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 단연 동유럽 지정학적 전개 상황이 관건이지만 지금 노출된 재료만으로는 환율의 일방적인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럴다 하더라도 글로벌 교역 악화 가능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감안하면 달러/원 하단 지지력 또한 의심할 수 없다.
- 긴장 고조로 3월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최근 크게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준의 빅 스텝 행보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다.
-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있을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게 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일정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 주중 발표될 2월 미국 제조업 지표와 연준 베이지북 및 고용 지표 등도 챙겨봐야 한다.
- 한편 국내에서는 2월 수출입 잠정치, 1월 산업활동동향 및 2월 소비자물가가 등이 발표된다.

##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도 필사적인 반격을 펼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7 개국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도 이어갈 계획을 밝혔는데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 러시아 역시 교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펼칠 협상 결과도 주목된다.
- 러시아의 SWIFT 배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관건이다. 러시아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고 시장이 이미 1 차 충격을 소화한 상황이라 추가 반응이 얼마나 있을지 주목된다.
-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 등이 반영될 수도 있는 만큼 변수는 적지 않다. 시장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로 움직일 수도 있다.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다음달 2일과 3일, 하원과 상원에 출석해 통화정책과 관련한 증언에 나선다.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기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월 50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연준의 스탠스와 미국 국채금리 향방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국내에서는 4 일에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가 관심이다. 로이터통신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50%, 전월보다 0.4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초점)-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방향과 크기는?**

2월 25일 (로이터) -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긴축으로의 방향 전환을 신호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계가 불투명해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 성장에 공통으로 리스크를 초래하더라도 나라마다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개시 직후 배럴당 100 달러 위로 치솟은 유가, 유럽 본토의 전쟁 재발이 심리와 투자, 무역,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 등 리스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애널리스트는 견실한 경제 성장 지속을 예상하며 인플레이션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던 중앙은행들이 일반적인 전략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성장 둔화와 물가 급등세 지속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들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전쟁 격화로 상황이 확실히 난감해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의 출발점이 높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승 압력을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면 지금의 상황 전개가 2023년 말이나 2024년 성장 전망을 악화시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아질 리스크도 키운다는 점도 중앙은행들은 인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스포드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이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평균 전년비 상승률은 올해 4.6%로 상승했다가 2023년 1.3%로 급강하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CPI의 경우 올해 상승률 전망치를 5.4%에서 6.1%로 높였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은 통화정책 긴축으로의 전환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의도를 재확인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잠재 수요는 강하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다. 인플레이션은 높고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논리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의 행위로 초래된 불확실성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이 신중 모드로 돌아서 정책 긴축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에버코어 ISI 애널리스트들은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 급증이 정책 정상화 과정을 거부하지는 않되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썼다.

그들은 연준이 일부 정책 결정권자들이 선호하는 50bp 인상을 배제하고, 3월 정책회의에서 인상폭을 25bp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란은행도 다음번 인상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ECB는 긴축 계획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미루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 상황과 기간, 심각성도 중요할 수 있다.

일례로 에버코어 ISI의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특별히 취약해" ECB의 긴축 계획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요국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 발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그들은 "초단기를 제외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쇼크의 여파는 모호하고,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 물가 수준의 충격을 살펴보는 게 교과서적이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물가 수준 충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은 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칼럼)-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에게 득인가 실인가?**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 2월 25일 (로이터)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은 신성불가침 하다는 중국의 주요 외교정책 원칙인 '내정 불간섭'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중국 외교관들은 이를 변호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현재 경제 성장 둔화 문제로 씨름 중인 중국에게 배럴당 105달러에 달하는 유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한 때 꽤 적대적이었다. 양국 군은 국경 분쟁으로 총격전을 벌였고, 중국 노년층은 20세기 초 러시아가 중국과 몽골 사이를 어떻게 멀어지게 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나 두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외교적으로 더 가까워졌다. 또한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의 안전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양국 무역 관계는 2021년 기준 약 1400억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추산했다.

중국이 푸틴 대통령의 위협을 나토로부터 안전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단순한 오포로 생각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주 우크라이나도 주권 원칙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 상황이 중국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서방이 대 러시아 금융 제재에 집중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견제 대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는 고립될 경우 에너지와 밀을 수출하고 미국의 금융 제재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에게 빚진 것도 없기에, 시 주석은 거래 시 중국에 유리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을 늘릴 수도 있지만, 다른 공급 옵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뒷마당인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 주석은 현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위안이 될 것이다.

### (초점)-채권시장, '4월 금리인상' 전망 낮춘 이유..그래도 채권 통 경계하는 이유

서울, 2월 2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2월 회의는 시장 예상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3.1%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장 초반 채권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담화를 거치며 4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한 것이 분위기 반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진단이다.

#### ▲채권시장, 4월 인상 가능성 작다고 보는 이유

한은이 이날 3%대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내놓은 것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3%대 물가 전망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물가 전망 조정과 함께 향후 기준금리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채권시장이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격에 빠르게 반영해 온 상황에서 물가 전망 자체가 '서프라이즈'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채권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선 이날 금통위가 4월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큰 위협요인이었기 때문에 물가 전망 발표 이후의 상황 전개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다. 금통위는 통방 의결문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19의 전개 상황 및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성장과 물가 흐름이라는 표현의 순번을 두 번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조정한 것 외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양호한 성장, 물가

급등을 예고한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은이 추가 조정의 조건과 관련해 성장, 물가 관련 문구를 뒤로 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날 이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 금융 안정 상황도 함께 본다"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였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기계적인 예상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해석도 가능하다.

이 총재가 높아지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대응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의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이날 기준금리 동결이 전원일치였던 점도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한은 집행부가 4월 금리 인상을 영두에 뒀다면 최소 1명의 소수의견을 안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다.

4월 금리 인상 불가론은 한은 총재 교체와 관련한 일정과도 연계된다. 이 총재가 3월에 퇴임한 후 새로운 총재가 바로 임명된다고 해도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건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여기에 이달 회의에서 이렇다 할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다면 새로운 총재의 행동반경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A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한은이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는 소수의견이든 이 총재의 강성 코멘트든 항상 미리 시그널을 주면서 왔다"며 "이번에는 분명한 시그널도 주지 않았는데 새로운 총재가 오게 되니 당연히 4월 회의 때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헤드는 "4월 금리 인상이 힘들어 보인다면 채권 투자자들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며 "향후 재정 지출 확대가 문제인데 새로운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지 못하는 상

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부른 추격매수는 위험..롱 포지션 정리도 신속해야

다만 이날 금리 급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뉴스가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추격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금통위가 4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4월에 시그널을 준 후 5월에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향후 수급 사정이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디로 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롱을 깊게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헤드는 "4월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해도 5월에 인상할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3월 50bp 인상이 물 건너갔다"고 하지만,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얼마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오늘 밤 뉴욕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며 "달러/원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의 원화채 매도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롱으로 많이 벌었다면 여기서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 (시장진단)-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달러/원 급등..수급 저항 속 커버성 거래는 제한

서울, 2월 2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 개시에 24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1200 원 대로 급등했다.

전날보다 1.5 원 높은 1195.1 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한때 약 10 원 속등해 1203 원 선까지 큰 폭 상승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23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하면서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스피는 한때 3% 가까이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규모는 6천억원을 넘어섰다.

#### ▲ 일단 리스크 오프..수급 충격 여파 가능

안전자산 선호 심화에 달러/원은 상승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다만 양방향 호가가 촘촘하게 형성되는 가운데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고 시장 참가자들은 설명했다.

역외 참가자들의 매수세를 비롯해 결제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네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환율 상승 속도는 조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오전까지 수급은 네고가 확연하게 우위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결제를 해야 하는 주체들도 있는 가운데 네고는 틈틈이 나오고 있다"면서 "역내 수급이 양방향 모두 들어오면서 거래가 되지만, 대외 여건에 비해 오퍼가 버터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원화의 방향성 거래가 소극적이었던 만큼 시장 포지션이 깊지 않아 커버성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환율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원화에 대한 큰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대외 상황 따라 등락 중이라고 보는 게 맞다. 글로벌 달러가 밀리면 달러/원도 함께 따라 내려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했고, 이에 따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수급 충격에 대한 우려는 크다.

오늘 브렌트유 선물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D 은행 외환 딜러는 "무력 충돌로 크게 번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뒤따른다면 유가는 계속 상승할 테고 그럴다면 달러/원도 하향 조정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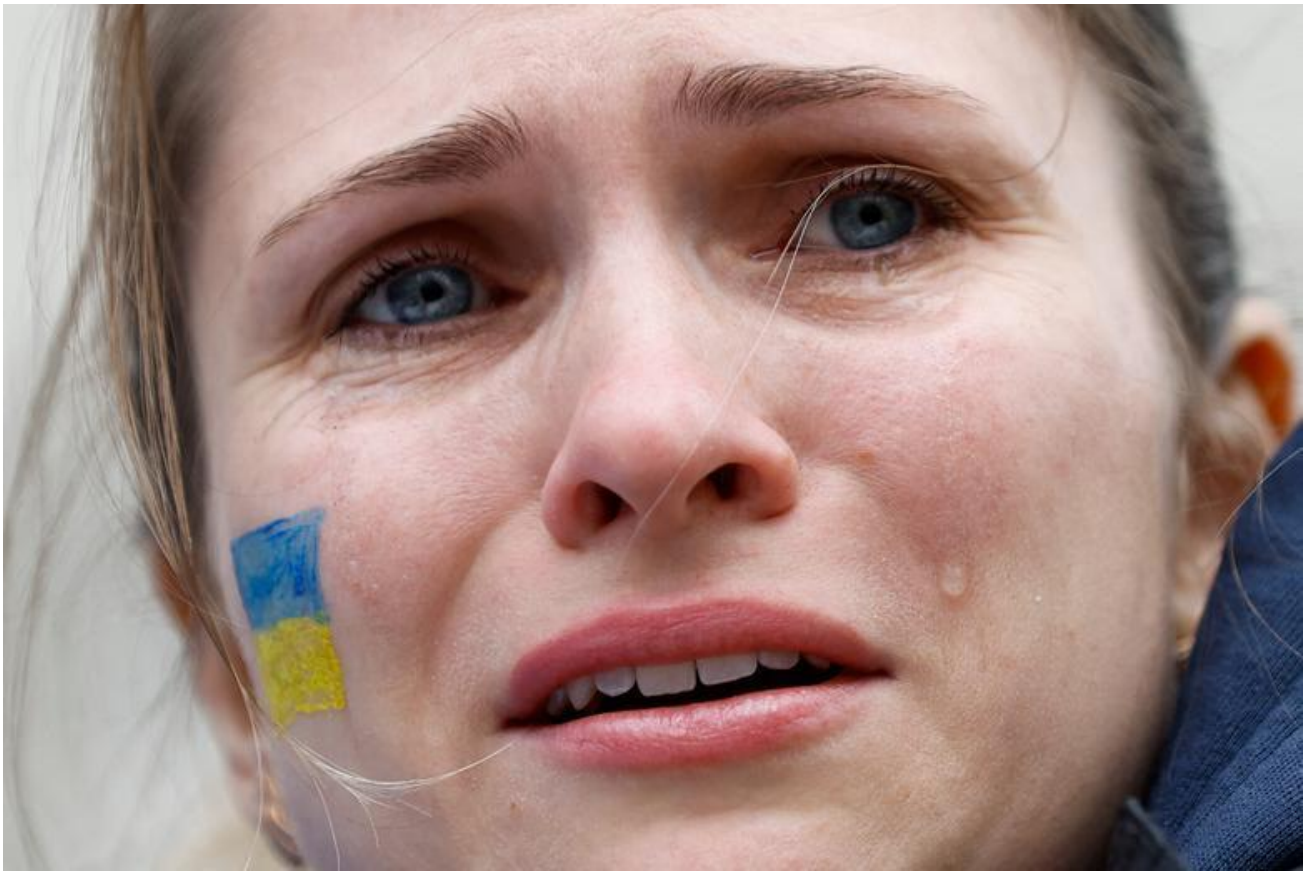
당분간 동유럽 지정학적 전개 양상 따라 원화가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달러/원의 고정 탐색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의 B 은행 외환 딜러는 "푸틴 행동에 대해 미국이 얼마만큼 강하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하는데, 이같은 재료로 인해 달러/원 환율이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달러/원 1220원 부근까지 고점을 열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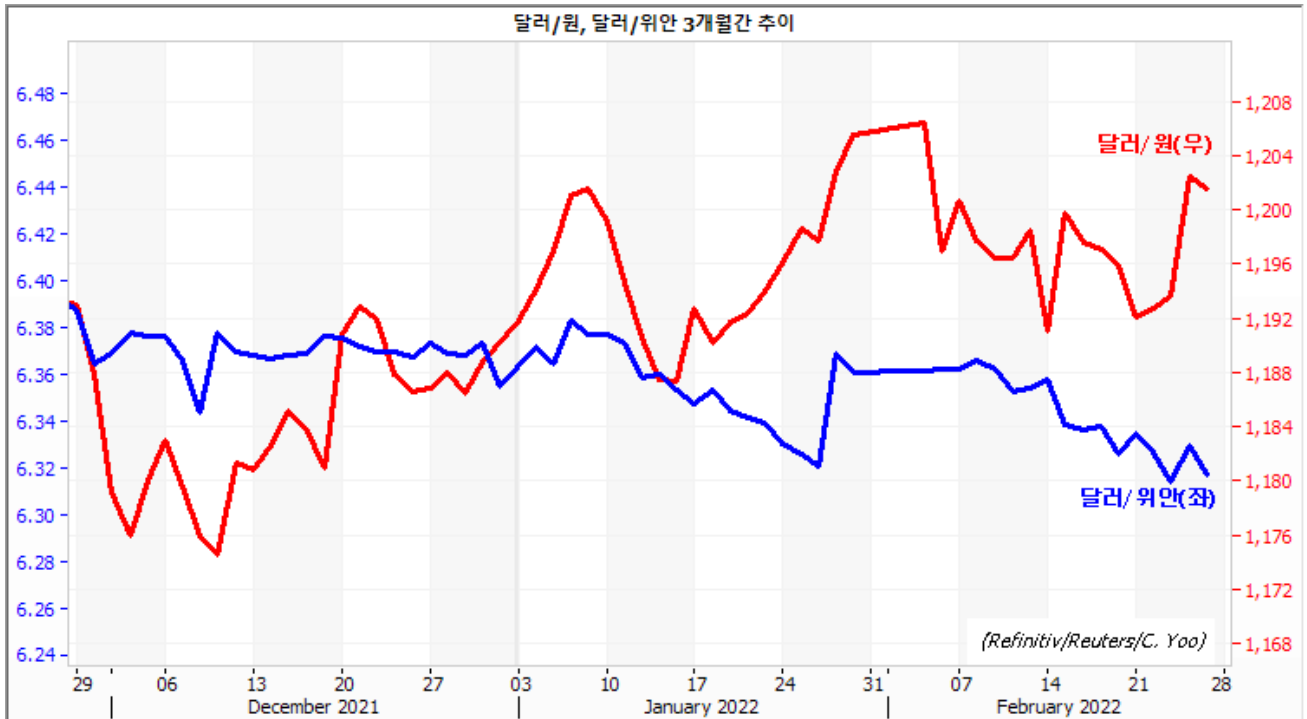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과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미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때와는 현재 상황은 크게 다르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따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혼란이 수반될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PEC 증산 결정 등 유가 안정 재료가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국내 수입이 늘고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